

[실무수습기]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된다”

심 은 정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국제관계학 석사
- 문화일보 기자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I. 들어가며

아담한 캠퍼스를 물들였던 단풍도 지고, 낙엽도 찬바람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 법이란 학문을 처음 마주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법과 새록새록 정을 쌓은 지도 벌써 9개월이 넘었다. 뒤돌아보면, 기자에서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로스쿨 입학 이후 생활은 모든 것이 새로웠고 시행착오도 많았다. ‘이제 시작이니까 점점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 위안으로 삼으면서도 ‘앞으로 잘 헤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늘 공존했다. 그러던 지난 8월,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의 인턴십은 공부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다.

태평양이 2주 동안 마련한 국제중재실무수습 심화과정에는 전국 로스쿨 1,2학년생중 선발된 29명이 참여했다. 국제중재 분야만 특화시킨 심화 실무수습이라 실무 교육 거의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됐다. 국제지역 전문법조인 양성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의 커리큘럼에 따라 1학기 때 비교법 과목에서 국제중재의 기본을 배운 것이 이번 실무 수습에서 도움이 됐다. 인턴들 중에는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각종 영어 모의 변론대회에 참가한 경력을 자랑하는 원생들이 적지 않은 수를 차지했는데, 가까운 미래에 법조계에서 함께 하게 될 이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자극이 되기도 했다.

II. 협력을 통한 경쟁을 즐겨라

첫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향후 2주간 진행될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오전에는 주로 중재팀에 소속된 한국, 외국 변호사들이 주제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론과 실무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팀별로 인턴 마지막 주에 있을 모의중재대회를 준비하는 일정이었다. 실제로 현재 중재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인턴들에게 주어졌다. 과제는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와 증거들을 검토한 뒤 모의 중재 법정에 제출할 영문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모의 변론대회에서 영어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었다. 당초 모의 중재대회는 인턴을 4팀으로 나누고, 다시 팀 내에서 신청인측, 피신청인측을 구성, 각각이 라운드별로 다른 팀의 신청인측, 피신청인측과 붙어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간에 방식이 약간 수정됐다. ‘즐기면서 일하고 친목을 도모해야 할’ 인턴 생활이 자칫 인턴들에게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태평양 중재팀의 우려에서였다. 종래 라운드별 대결 방식에서 팀별로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이 모의 중재를 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덜 하긴 했으나, 프로젝트에 대한 인턴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실제 심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관련 자료들을 태평양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었는데, 토론을 통해 과제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고, 재토론을 통해 이를 수정 보완했다. 결과물을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영문 서면을 나눠서 작성 검토하는 4-5일 동안은 저녁 10시 이후에 퇴근했다. 영문 서면을 제출한 뒤, 모의 중재대회에 앞서 이를 동안 구두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다. 이 훈련 과정이 서면 작성 때보다 더 힘들었다. 서면으로 구성한 논리와 주장을 영어로 설득력있게 전달하고, 간간이 실제 중재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상용 어구를 곁들이며, 중재인의 질문에 대비한 예상 시나리오도 작성해야했기 때문이다.

구두변론 준비로 힘들었던 이들 동안 우리 팀 지도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님과 매튜 크리스텐슨 변호사님은 늦은 밤 시간까지 담당 지도 인턴들의 구두 변론 연습을 함께 하셨다.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꼼꼼히 짚어주셨다. 자신들도 새벽까지 바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성실히 지도해주는 모습을 보며, 변호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덕목을 2가지 꼽으라면, ‘강철’ 체력과 프로의식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III. 국제중재 기초에서 실무까지

8월 16일 오후 태평양 국제중재팀장인 김갑유 변호사님의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국제중재는 민사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적 재판기관인 중재인에 맡겨 그로 하여금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게 하는 제도다. 국제소송의 경우 송달에만도 짧으면 4개월 길면 1년이 걸리는데, 중재는 이 과정을 생략해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통지만 하면 된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우며 중재인 앞에서 얼마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 중 인상 깊었던 것은 국제 중재지로서 한국이 갖는 잠재력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중재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중립적이고 국제적이어야 하며, 정교해야 하는데,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동시에 영미법의 실무를 겸비하고 있어 현재 홍콩이 주목받고 있듯이 법률 시장, 특히 중재의 중요한 요충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요지였다.

17일에는 방준필 미국 변호사님으로부터 국제 중재에서 관할과 중재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18일 조승우 변호사님의 중재 합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19일에는 신연수 변호사님이 국내 및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각종 판례들을 소개하고 평석을 하셨다. 특히 뉴욕 협약 5조에 언급된 ‘공공의 질서’와 ‘국제적 공서’를 해석하는 기본 원칙과 이와 관련한 판례들은 흥미로웠다.

20일에는 제임스 모리슨 변호사님의 증거 수집 및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21일은 우리나라 민사에서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 국제 중재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변호인-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대해 매튜 크리스텐슨 변호사님과 양성우 변호사님이 강의하셨다. 다소 생소한 주제였으나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권장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논의 중인 사안이라 흥미로웠다. 국제 중재의 경우, 각 국가마다 변호인-의뢰인 특권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심리에서 민감하게 다루인다.

주제별로 국제 중재 이론을 배우며, 나름 국제 중재가 가진 매력의 일부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중재 변호사에게는 논리의 창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듯했다. 그리고 외국법에 대한 리서치 능력은 필수였다. 예를 들어, A국의 a회사가 B국의 b회사와 거래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계약서에는 채무 불이행시 A국의 준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을 경우 계약과 관련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 당연히 A국의 준거법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만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연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할지가 중재에서 문제된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관련 조항의 범위를 실제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도 심리에서 큰 쟁점이 되는데, 변호사의 논리 구성력과 창의력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았다.

IV. 모의중재대회-영어 구술변론 훈련

8월 26일 드디어 국제중재실무수습 심화 과정의 하이라이트인 모의중재 대회가 열렸다. 중재팀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재인을 상대로 4개 팀들의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은 이미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20여 분간 구두 변론을 했다. 이후 중재인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구두 변론은 중재의 기본을 바탕으로 각 팀의 개성있는 연출력도 결들여져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흥미진진했다.

모의 중재에서는 각 인턴들의 영어 실력이 돋보였다. 자유자대로 조리있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동료 인턴들을 보며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공부를 하는 틈틈이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팀들의 순서가 끝나고 중재팀 변호사님들의 강평이 있었다. 특히 구두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대해 설명하셨다. 또 중재인의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출한 서면은 물론 관련 자료들과 증거들을 꿰뚫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프로로서 갖춰야 할 철저함이었다.

V. 인간관계의 황금률

인턴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변호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위한 약속잡기였다. 김갑유 중재팀 대표 변호사님은 인턴이 실무기간 중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선배 변호사들을 찾아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들의 조언과 경험담을 통해 간접체험의 폭을 넓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세계의 현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들은 4인 1조로 중재팀 외에 다른 팀 소속 변호사분들과 식사를 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변호사님에게 연락해 점심 약속을 잡기도 했고, 본인들이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고 계신 변호사님에게 무작정 연락해 일정을 잡아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인턴들의 '섭외' 능력은 보통 수준을 넘는 듯 했다. 방송·통신, 건설·부동산, 기업 법무(파산 회생) 팀, 형사 송무 등에 소속한

변호사님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 변호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었다. 대화를 통해 다소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변호사 업무를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1년차 변호사님부터 경력 많은 변호사님까지 그 분들이 해주시는 조언은 천차만별이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변호사에게 인성과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승소하고도 의뢰인을 잃는 반면, 패하고도 의뢰인을 얻는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등은 선배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한 교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VI. 마치며

인턴을 마치고 학교에 복귀했을 때는 내적으로 손 한 뼨만큼 성장한 느낌이었다. 인턴 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니었고, 양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배운 것도 아니었지만, 인턴 이후 1학기 내내 자리를 잡지 못했던 마음 한 부분이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 했다. 무엇보다 인턴 생활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로스쿨 3년 동안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전에는 늘 불안하다. 그렇지만 일단 시도해보면, 경험이 주는 교육 및 학습의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2학기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생소한 과목들과 또 다른 만남을 하고 있다. 가끔씩 마음이 지칠 때, 인턴 생활에서 만난 어느 변호사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인상 깊은 한 마디가 문득 스치곤 한다.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 마음 속으로 파이팅을 외쳐본다.